

◆ 정부시적 ◆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 대책」수립 추진

통상산업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산업계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력 공급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기술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기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통상산업부가 토론주제로 발표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 대책(안)」은 국내 2,500여개 제조업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동 대책(안)에 의거 국내 제조업체 산업기술인력의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 국내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이나 기술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기술인력은 1997년 현재 63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 제조업 전체의 산업기술인력 부족율은 5.9%인 3만7천명으로서 이중 전문대졸 산업기술인력의 부족인원은 2만6천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인력부족 현황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총 인력 부족율은 1.7%인데 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율은

11.3%에 달하고 있고,

- 학력 수준별로의 인력부족은 석·박사급 고급인력과 전문대졸 중간기술인력에 주로 집중되는데 특히 박사인력 부족율은 21%인 1,02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족인원 대부분은 공학계열 전공자이며 공학내 세부전공별로는 기계(9,042명), 전기·전자·전산(5,688명), 화학·화공·섬유(4,034명) 등의 순으로 부족인원이 많고 이학 전공자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제조업에서 연구직이나 기술직에 여성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8.1%이며, 업체당 평균 여성 구성비는 3.8%에 불과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국내 제조업체의 산업기술인력 전체의 이직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박사인력 이직율은 42.1%로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의 경우 고급인력의 안정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산업기술인

력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 우리나라 대학의 인력양성이 산업계의 수요와 괴리되어 이루어졌고, 배출인력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또한 기업의 인력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여 기업내 정착도 및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 있으며,
- 또한 이공계 대학(원) 졸업자가 전공 이외의 분야나 연구·기술직 이외의 부문으로 유출되는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등 연구·기술직 이외로의 인력유출이 많으며,
- 산업기술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계의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 체제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적극적 활용체제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우선, 산업기술인력 양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는

- 이공계 대학의 교육기능을 특성화하여 일부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에 특화하고, 대다수의 대학은 기술교육중심대학으로서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현장지향적 기술인력을 집중 양성하도록 하며,

- 대학이 학과 통폐합, 대학간 제휴 및 통합, 교육기능의 차별화 및 지역특성화 등의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이를 대학평가에 반영하고 세계혜택 등을 제공하여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며,
- 이공계 대학정원을 교육여건 및 분야별 인력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도 일정기준 이상의 대학에 대하여는 공학계 정원을 자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 또한, 이공계 대학생의 산업체나 연구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교과과정에 실험실습을 보장하고 팀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이공계 대학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 한편, 기업체 혹은 기업체 연합이 기술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기술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총정원 400명 이하의 공학계열 및 신산업분야 관련 교육기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시켜 소규모 특성화대학을 첨단 기술 및 전문분야의 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산업기술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는

- 여성인력의 공학계 진출을 확대하며, 여성 공학계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에 대

한 특별장학금 지급 등 여성의 공학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 여성의 출산휴가시 지급급여는 의료보험에서 부담케 하는 등 모성보호비용의 사회화를 추진하며,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비율(현행 10%)을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 병역특례요원에 대한 편입자격을 중소기업에 한하여 학사급 인력으로 하향조정하고,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자격을 석사급 연구전담요원 2명에서 학사급 연구전담요원 5명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 되었다.
- 또한, 대학교수 및 정부출연(연)의 연구인력과 기업을 연계해주는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기업의 고급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인력의 효율적인 양성 및 활용체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 현재 정부 각 부처들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인력 수급 관련 실태조사들을 일원화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산업기술인력 정책의 종합적 조정을 담당할 국가적 차원의 산업기술인력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아울러, 기업체, 직종별 협회, 전문직 단체 등의 민간단체에게 특수전문분야 자격제도에 대한 자율적인 창설 및 운영을 허용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 전문위원회 등에 대하여 산업계 인사의 참여도를 상향조정하며, 현행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로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통상산업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는 하루 속히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인력양성 및 개발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산업기술인력 수급 효율화 대책(안)」을 '98. 1월까지 관련기관 및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98.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98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확정

통상산업부는 정부 학계, 연구소,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전문위

원회를 개최하여 '98년도에 실시할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과제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등 10개 분야의 55개 과제으로써 특히 '98년도에는 첨단기술이며 개발시 파급효과가 큰 태양열,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및 석탄가스화복합발전 등 신발전분야에 역점을 두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도모하며, 세계기후변화협약 등 세계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금년초에 「대체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을 통과하는 등 올들어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지난 1988년부터 10년간의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성과는 태양열을 이용한 가정용급탕 시설 약 84,000기가 보급되고 이밖에도 태양광발전 2,161KW, 산업체 메탄가스 이용 시설 93개소, 폐기물 소각열이용시설 420여 개소, 소수력발전소 20개소(37MW), 풍력발전 3개소(1MW) 등이 설치되어, 1996년 말 현재 대체에너지는 총 에너지의 0.7%를 점하고 있다.

중소제품 국외 판매지원 범위 擴大

앞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국외판로 지원사업 범위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관한 사업과 국제거래알선 및 상품의 해외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등의 사업이 추가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단체수의 계약 물품 추천요건을 강화, 단체수의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의 국외판로 지원사업 범위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과 국제거래알선 및 상품의 해외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국외판로지원사업의 위탁, 해외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매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증대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통

신 등 10개 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이와함께 中企廳長은 조합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 운용에 관한 기준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구매대상 물품의 추천에 관한 기준을 통합고시토록 하는 한편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물량배정의 원칙 및 균등수혜의 예외등이 포함된 수혜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종합유통센터(중전 중소기업전용백화점)의 효율적인 건립·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과 사업범위, 회사 설립승인 신청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기준과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절차 및 영업개시 등의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이 영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법정마크로 전환한 중소기업우수제품 마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품질인증절차, 인증기준, 우수제품마크,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절차, 사후관리 내용을 규정했다.

조명기기 수출산업 育成

통상산업부는 조명기기산업을 2천년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조명기술연구소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핵심기술 및 디자인기술 개발 강화,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확대 등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내수시장이 1조3천억원에 달하며 연 10%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조명기기 산업이 외국제품의 수입증가와 국산제품의 품질·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에 대응, 江原大 산업기술연구소 위탁을 통해 조명기기 산업의 발전방향과 전략에 관한 기획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명기기는 용도가 확대되면

서 수출 산업으로서의 성장이 기대되나 국내 시장을 주도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취약으로 수입이 최근 3년간 연평균 30%씩 늘어나고 있는데다 수출도 감소 추세에 있다.

이와함께 제조업체 및 부품업체의 영세성과 난립, 저가경쟁 위주의 시장구조, 생산인력의 부족 등 산업구조적 문제와 부품 및 소재개발의 미흡, 기초기술 및 디자인 기술의 열세 등 기술적 측면의 문제점도 제시됐다.

특히 조명기기 산업의 경우 유통구조가 없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으며 조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제도가 없는 것도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통산부는 조명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는 관련업체들의 제휴를 통해 적절한 산업규모를 달성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으로 조명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유통구조 확립,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통해 고부가제품의 시장을 창출, 중기적으로 수출산업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뒤 장기적으로 세계 특정지역 시장 및 틈새시장을 확보하는 발전방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조명기기의 수출확대를 위해 무역진흥공사의 전략마케팅사업에 조명기기를 포함시켜 해외시장 조사, 관련자의 해외연수, 수출촉진단 파견을 지원하고 각국의 안전규격의 분석 및 취득지원 등의 활동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한편 통산부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전등기구조합에서 추진중인 조명기술연구소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꾀하고 산업기술기반자금 및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으로 부품 및 소재개발과 핵심기술·디자인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수제품의 홍보활동 강화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수출을 촉진하며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에너지 절약 연구과제 확정

통상산업부는 에너지기술개발심의회를 열어 '97년도 2차분 에너지절약 연구과제를 확정하였다.

'97년도 2차로 확정된 연구과제는 44개 과제, 총 81억원(정부 57억원, 민간 24억원)이다.

통상산업부는 정부, 학계, 연구소,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심의회"를 개최하여 '97년도 2차분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과제는 중점기술개발, 일반기술개

발, 특성화사업 등 6개 분야의 44개 과제이며, 특히 금번에는 에너지절약 파급효과가 큰 중점기술개발 분야에서 17개 과제가 신규로 지원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해 '92년부터 총 372개 과제에 1,326억원(정부 877, 민간 449)을 지원하여 상용화 대상 91개 과제중 "산업용 촉매연소기기" 등 23개가 상용화되므로써 수입대체 및 에너지절약 효과는 1,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97년도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사업 확정내역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과 계 수	사 업 비		
		정부지원	민간부담	계
계	158	21,579	12,390	33,969
1 차	114	15,831	10,007	25,838
2 차	44	5,748	2,383	8,131

기술혁신 개발자금 4백억 支援

내년도 기술혁신개발 지원자금이 400억원으로 올보다 100억원 늘어난다.

중기청은 '1998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계획'을 개정 공고, '98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동안 국립기술품질원,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사무소, 요업기술원에서 신청(사업계획서 제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소기업지원특별법에 규정된 소기업은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신청자격을 부여,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늘렸다.

또 기술수요조사 결과 중소기업에 파급효과가 크거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지원, 외국인산업연수생

우선 배정 등 각종 지원책을 실시토록 하고 차년도 사업신청 때 가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장은 주관기업이 협약취소, 기술료 미납, 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된 때 3~10년동안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술혁신개발사업 주관기업의 전부양도, 상속 또는 합병시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승계할 수 있게 했다.

중기청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 3월중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으로 기술혁신개발 능력을 보유한 기업에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고 1억~1억5천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 자금

은 은행을 통한 융자금과 달리, 중소기업청 예산에서 직접 개별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무담보·무이자·무보증 형식의 출연금이다.

특히 이 자금은 기술개발이 성공한 경우에만 출연금의 30%를 1년 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갚으면 되는 파격적 지원금이다.

신청자격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미상장 중소기업체, 다만 소프트웨어·공업디자인서비스업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체, 기술 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97년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지원규모가 늘어났다.

벤처기업 창업자금제 도입

「벤처기업 창업자금제도」가 도입돼 내년 부터 사업화 가능성이 있으면 무담보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창업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기술력 있는 예비창업자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해도 담보가 없어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1백50억원을 「벤처기업 창업자금」으로 운용해 무담보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고려, 벤처기업 창업자금제도를 통해 담보도 없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신용이 필만한 업력이나 매출액도 없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서는 형태로 창업기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은 전체의 78.5

%가 담보부 대출 19.6%가 신용보증대출 형태여서 담보나 신용이 없는 기업은 각종 정부지원의 융자 추천을 받더라도 일선 금융기관 창구에서는 외면받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청은 내년도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대상은 이공계열 전공의 대학교수, 박사학위자, 기술사 또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연구원으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업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을 운용하는 경우로 할 방침이다.

또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2억원 이내로 하고 대출조건은 연리 6~7%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예비창업자는 사업성을 평가받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輸出기업도 技術信保 추천

수출이 매출액의 절반을 넘는 기업들도 기술신용보증 지원을 받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 추천요령'을 개정,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을 우선 추천해 주기로 했다.

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성공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우수제품(GQ)마크 인증기업 ▲ 전설신기술 획득기업 등도 우선 추천 대상에 추가했다.

중기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으로부터 보증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131개 업체가 455억원을 지원받았다.

기술신용보증 특례지원추천제도는 중기청이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추천할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별다른 절차없이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6억원 이하의 운전자금을 신청하면 기보에서 황·적색거래, 적자발생 여부 등에 대한 간이심사만으로 보증해주며 6억원이 넘는 경우 정식심사를 하게 되지만 기술개발 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만점으로 인정해 준다.

개정된 주요내용과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은 인터넷 중기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추진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기술과 품질취약요인을 발굴, 분석하고 이를 지원유관기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각종 지원제도에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므로써 기술력과 경쟁력을 향상시

키는 기술수요조사사업을 '96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자동차용 고효율 할로젠 램프 등 75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98년도 지원과제로 418건을 도출하고 78억원의 지원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

하여 도출과제를 해결키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기술수요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초 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관련기관, 기계공업진흥회, 전자공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와 전문시험연구기관인 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소 등 총 460여 기관으로부터 315개의 품목을 추천받아 산·학·연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분석평가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75개 품목을 기술수요조사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 국립기술품질원, 대학 및 전문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75개 정밀진단반을 구성하고 연인원 525명이 2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현장의 기술수준, 품질취약요인, 기술개발수요, 인력, 자금, 판로 등에 대한 종합진단과 국내·외 제품 860여점간의 품질비교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최종적으로 418건을 지원과제로 도출하였다.

이번에 도출한 지원과제는 기술개발 136건, 전문가에 의한 생산현장 기술지도 97건, 기업간의 기술협력 11건, 신기술 정보제공 51건 등 기술관련 과제가 300건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자금, 인력, 판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에 관련된 과제도 28%인 118건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와 같이 도출된 기술애로 및 취약요인에 대한 세부지원방안을 수립하여 '98년도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사업에

우대 지원키로 하였으며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지원하지 못하는 신소재 개발, 고기능성 필름 개발 등 18건의 중·대형 연구개발과제는 통상산업부 및 과학기술처와 협의하여 개발과제로 공고토록 함과 동시에 지원제도에 연계·지원토록 하고 시설자금, 기술인력, 판로 및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의 지원과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계공업진흥회, 전자공업진흥회 등 지원유관기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에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추진할 것이라 한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 기술과제 발굴을 위해서 생산현장 정밀진단과 제품비교평가를 병행하는 기술수요조사는 작년 이어 2번째로 실시한 것으로서 '98년도에는 지금까지의 조사경험을 토대로 조사기법 등을 발전시키고 자본재산업 등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 위주로 대상품을 선정, 내실있는 조사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수요조사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 한다.

〈'97 기술수요조사 대상품목 현황〉

- 전기·전자(22) : 고효율 할로겐램프, 환풍기, EMI Noise Filter, 압전형 가속도 센서, 차압트랜스센서, 자중계, 일산화탄소센서, 방폭형 로드셀, 교류아아크용접기, 위성방송수신장치, 애자(고전압붓싱, 현수애자 포함), 전기타이머, LED 전광판, 전자식 형광등용 안정기, 화재경보장

치, 전기맞사지기, 위치비례형 P.I.D 온도조절계기, 전자식 형광등용 스타터, 전

자식 네온변압기, 스피커유니트, 스피커 시스템, 헤드폰

신기술 · 신개발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적 안전성 확보

국립기술품질원은 중소기업에서 개발하여 실용단계에 들어간 소구경 형광램프(직관형(막대형) : 9W, 11W, 18W) 등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냉장고용전자식스타터의 전압 및 동작특성의 예열 시간을 단축시킨 신개발품에 맞추어 현행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강화시켰다.

또한, 코드블임 꽃음플러그 및 메탈할라이드램프의 검사갯수 및 합격판정갯수 등을 한국산업규격(KS)과 시험방법이 상이한 내용을 통일시킴으로써 동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기술기준 내용중 기준이 상향조정되거나 적용범위가 추가된 내용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수입) 판매하여야 한다.

〈전기용품의 기술기준 주요 개정 내용〉

1. 신기술, 신개발품에 대한 적용범위 추가

- 형광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형광등용 전자식스타터(3품목)
 - 형광램프 : FL 9, FL 11, FHF 16SS, FL 18, FL 58SS 램프
 - 메탈할라이드램프 : E26베이스
 - 형광등용전자식스타터 : FL 4, FL 6, FL 8, FL 10, FCL 32, FCL 32 S/30 램프

2. 한국산업규격(KS)과 시험방법 통일

- 꽃음플러그, 방전등용안정기, 메탈할라이드램프, 교류아크용접기(4품목)
 - 꽃음플러그 : 공통사항(일체형 시험방법 추가)
 - 방전등용안정기 : 구조(내화성 금속의 밀폐형에 대한 시험방법 추가)
 - 메탈할라이드램프 : 검사갯수 및 합격판정갯수(합격판정방법을 변경)
 - 교류아크용접기 : 정격 및 평상온도 상승(무부하 및 정격부하전압을 변경)

3. 기타 관련 시험기관에서 요청한 내용

- 온도퓨우즈에 내식성 시험항목 추가 (한국전기연구소)

- 전기냉방기의 소음시험항목을 일체형으로 변경(한국소비자보호원)
- 전기용품의 전자파장해 기준 및 측정방법중 시험방법 추가(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대용시험장의 전자파 감쇠특성(수평편파, 수직편파)
 - 시험장의 감쇠량 측정절차

韓電, 내년 중소기업에 200억원 지원

한국전력은 내년중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 모두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 '중소기업 발전촉진대회'를 열고 당초 올해를 끝으로 전면 중단할 예정이던 '중소기업기술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를 위해 내년중 ▲ 電力 벤처기업 창업지원 ▲ 보유기술 무상제공 ▲ 기술복덕방 운영 등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한전은 특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

히 해결하고 정보제공 및 신기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통상산업부의 종합기업서비스 전산망인 이노넷(Inno-Net)에 전력부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지원 정보와 입찰정보 등을 제공키로 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93년 이래 2,30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두 1,230억원을 지원한 결과 내년 하반기 부터는 연간 1,400억원의 수입대체 및 1억달러의 수출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